

HIV와 에이즈

우리는 흔히 에이즈와 HIV를, 감염인과 환자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엄밀히 얘기하면 에이즈와 HIV, 감염인과 환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2006년 신년호부터는 에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원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6회에 걸쳐 에이즈에 대한 상식을 게재할 예정이다.

설리 편집 실

➔ HIV와 에이즈 어떻게 다른가?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로서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된다. HIV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HIV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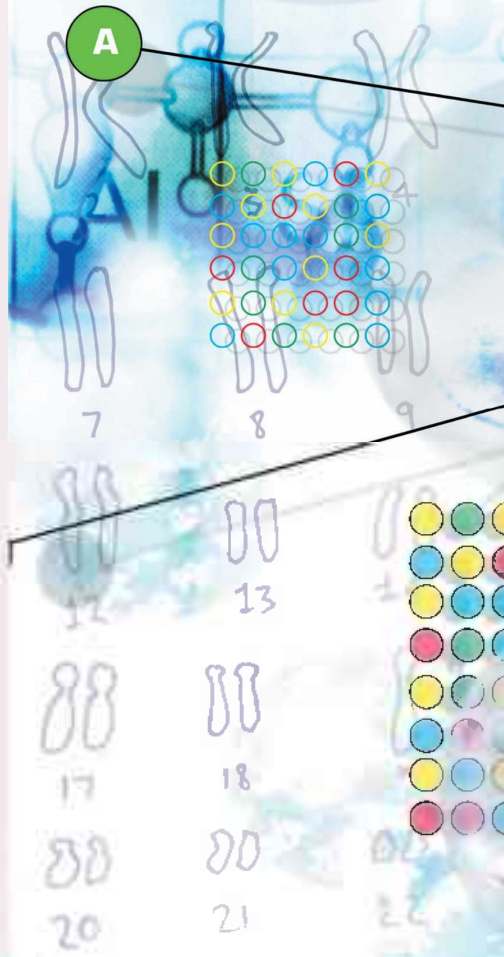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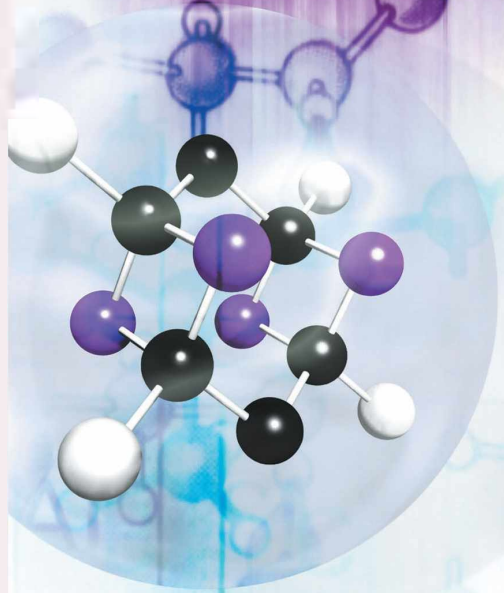
1983년 프랑스 과학자들은 HIV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곧 이어 미국 과학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LAV, 미국에서는 HTLV-III 또는 ARV로 서로 다르게 지칭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바이러스를 비교한 결과, 실제로는 동일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결국 이 바이러스의 명칭은 오늘날과 같은 HIV로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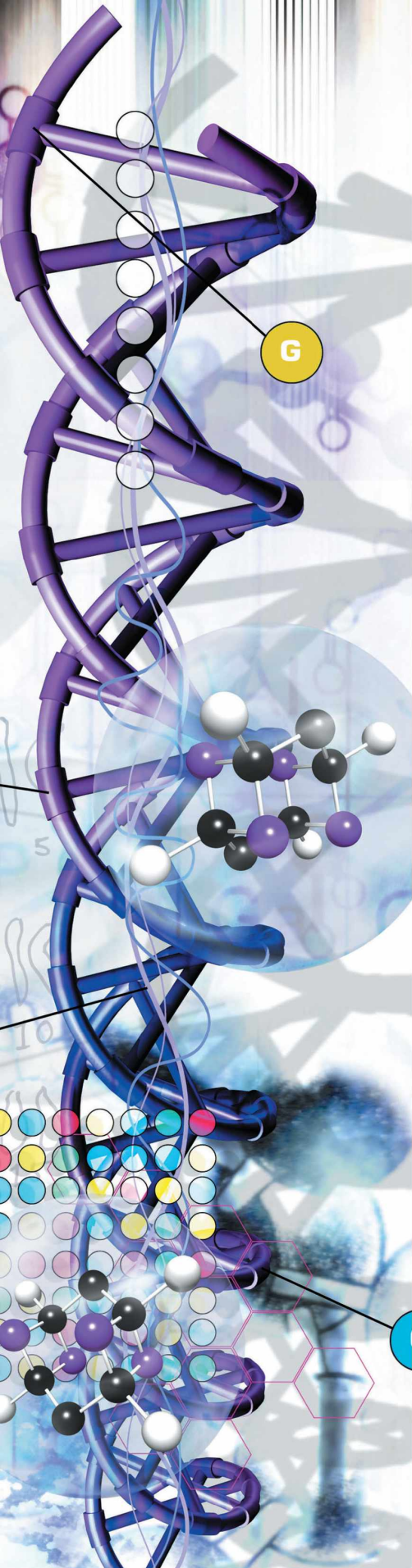
HIV에 감염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다.

- ▶ 혈액 / 정액 / 질분비물 / 모유

에이즈(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 면역결핍증)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진행성 증후군이다.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손상되고,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을 넘게 되면 치명적인 감염증이나 암을 일으켜 에이즈 환자로 진행되게 된다. HIV감염인이 에이즈 환자로 진행되기까지 이 바이러스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손상시키는 역활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년기에 있었던 감염의 재발과 같은 질병에 대해 인체 내에서 스스로 저항하고 통제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HIV에 감염되면 이러한 면역기능을 상실하여 질병으로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바이러스는 뇌와 기타 기관까지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에이즈환





지들이 운동이나 기억력, 인체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에이즈 환자들의 사망원인은 단순히 HIV에 감염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HIV가 인체에 침투하여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점차 감소시켜 어떠한 질환이 발생해도 이를 막아 낼 수 없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 면역체계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면역체계란 외부의 이물질에 대한 인체의 방어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의 집합이다. 면역체계는 백혈구 세포가 몸 전체를 순회하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떤 이물질(세균, 병원균)을 발견하면, 이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작동된다.

이들 백혈구 세포 중 어떤 것은 질병의 병원균을 직접적으로 잡아먹음으로써, 또 어떤 백혈구 세포는 인체 내로 침입하려는 병원균에 대응하여 항체를 만듦으로써 인체를 방어한다. HIV항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항체들은 질병이나 감염에 대해 방어하는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HIV감염으로 면역체계가 손상되면, 질병이나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HIV감염에서 에이즈로 진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986년 이전까지 HIV 감염인의 반수 정도는 감염 후 10년 내에 에이즈로 진행되었다. 물론 이 기간은 개인의 건강관리 습관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996년 이후 항레트로 치료법의 도입으로 에이즈로의 진행에 획기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에이즈관련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약제 개발 덕분에 조기발견이 점차 길어지고 있어 현재는 만성질환으로 보고 있다.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HIV도 감염사실을 빨리 알수록 치료나 예방을 위한 개인 선택할 폭이 넓고 관리할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조기발견에 대한 장점이 강조되고 있다.

➔ HIV는 어떻게 에이즈를 야기시키나?

HIV는 인간의 면역체계를 담당하는 CD4+ T세포를 파괴한다. CD4+ T세포의 감소는 에이즈로의 발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수로 사용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혈액내 HIV양, CD4+T세포 감소와 에이즈 발생 사이에는 강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을 밝혀냈다. 항레트로치료법으로 HIV 양이 줄어들면 개인의 면역체계 파괴는 극적으로 늦출 수 있다.